



당신의 시대, 이제는 통일이다!



이슈 in 통일

최근 한 달간 언론사들의 통일 관련 주요 소식 및 이슈 모음



통일 Talk

DMZ 마을 아이들이 만든 통일 영화 이야기 들어 보실래요?



당신이 통일주인공

'탈북민' 편견 없애고 소통으로 하 나된 중소기업 근무 최강국 과장



통일돋보기

남북 군생활 전격 비교!



앱 설치하기



지난호 보기



웹진 다운로드



구독 신청



구독 해지



웹진개선의견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안보환경 전망

정구연(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2017년 1월 20일, 많은 우려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였다. 선거 기간 정체되지 않은 레트릭으로 쏟아내었던 그의 대외정책 기조로서의 트럼프 독트린은 대전략 차원에서 미국이 마주한 위협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접근법과 정책수단은 무엇인가에 있어서 현실주의적 선회를 예고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마주한 국제사회는 미국 스스로 대응하기 어려운 다양한 안보위협이 혼재하여 이를 위해 다자적 축소 차원에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공고화 하려고 시도하였고 또 동시에 이러한 국제사회 다자적 관계 속에서의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고자 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인식하는 위협은 테러리즘과 미국의 경제적 위상 약화, 불법이민문제이다. 즉 지극히 현실주의적 시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또한 미국 본토에 국한된 위협의 외연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은 미국 우선주의인 것이다. 이는 미국의 국익에만 온전히 집중하겠다는 의지이며, 미국 본토에 집중한 국토안보 및 대외정책, 그리고 거래주의에 따른 다자주의에 대한 거부 등 일방적 축소의 접근법으로 개념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국내정책 현안에 우선순위가 있다. 실제로 대통령 당선 이후 2016년 11월 21일 밝힌 100일 계획(100 days plan)에서도 국정 우선순위는 미국의 국내적 이익, 특히 경제영역에서의 정책전환이 주류를 이룬다. 그가 밝힌 100일 계획의 핵심은 제조업과 다양한 산업영역에서의 혁신이 미국 본토 내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다. 예컨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으로부터의 탈퇴, 셰일가스 등 에너지 산업관련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비자프로그램에 대한 조정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계획은 선거 기간 당시 트럼프 후보의 홈페이지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유권자와의 계약'이라는 제하의 선언문으로 남겨진 바 있는데, 최근 6개의 행정명령과 메모, 국가무역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이행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에 대해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국제사회 리더십 유지에 기여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행보에 놓여있는 불확실성은 여러 차원에 존재한다. 우선, 트럼프의 중상주의적 경제정책과 이제까지 미국이 유지해온 자유국제주의 적 리더십, 특히 외교·안보 현안에 있어서의 미국의 역할이 어떻게 조정될 것인가의 문제이다. 트럼프 독트린을 통해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 기조는 현실주의 시각에서의 역외균형전략적 측면이 크며, 책임 전가 차원의 동맹국들과의 방위비 분담 재조정 논의 부상, 거래주의 접근법 차원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의 탈퇴 결정, 균형 차원에서 중국과의 무역관계 재조정 등의 결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국제사회 리더십 유지에 기여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또한 미국 내 여론에 따라 대외정책이 얼마나 변화할 것인가, 혹은 국내문제로 인해 대외정책이 영향을 받을 것인가 등의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논란은 국가안보 대통령 메모 2호에 따른 국가안보회의 운영 매뉴얼 변화와 더불어 백악관 수석 전략가 스티브 배넌이 이례적으로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사실에 기인한다.

세간에서는 국가안보회의가 스티브 배넌 수석 전략가, 토머스 보설트 국토안보보좌관, 마이클 폴린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강경론자들이 이끌게 되었다는 점을 우려하고는 있지만, 최근의 행정명령 13767호가 유관 부처간 협의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처리되어 혼선을 빚는 지금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국가안보회의가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 얼마나 유효할지는 미지수이다. 외교안보부처 실무진들이 자리를 채울 때까지 선거 기간 논란을 일으켰던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공약은 여과 없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트럼프, 美워싱턴서 매트리스 국방장관 취임식 참석

트럼프의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은
 이전 행정부들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는 판단 하에,
비핵화의 의지가 없는 북한을 중국을 통해 압박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트럼프의 접근법이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문제에 대한 접근법은 중국역할론이다.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압박해야 하고, 미국은 이러한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미중간 '무역전쟁'과 미국의 상업적 이익을 침해하는 남중국해 문제가 아시아에서의 우선순 위라는 점을 트럼프뿐만 아니라 마이클 폴린 국가안보보좌관, K.T. 맥퍼랜드 부보좌관 등에 의해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기는 하나,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 발사 징후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로 인해 고조된 위협인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적에게는 강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고, 최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밥 코커 의원은 북한의 정권교체나 비동적 수단의 유용성을 언급한 바 있으며, 이러한 공세적 접근법은 마이크 폼페오 국가정보국 국장과 마이클 폴린 국가안보보좌관과도 공유되고 있다. 요컨대 트럼프의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은 '이전 행정부들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는 판단 하에, 비핵화의 의지가 없는 북한을 중국을 통해 압박한다는 데 있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군사적 압박뿐만 아니라, '하나의 중국'과 같은 원칙을 협상 대상으로 삼는 거래주의적 접근법도 간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와 협상을 원할 것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응하더라도 '햄버거를 대접하겠다'고 말할 만큼 김정은을 동등한 대화 상대로 취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요컨대 트럼프의 대북접근법은 아직까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나, 한반도에 있어서의 한미동맹 유지와 북한 비핵화라는 전략적 목적은 유지될 것이다. 다만 그 대북접근법과 추진 로드맵은 '전략적 인내'로부터의 차별성을 이끌어내고자 할 것이다.



국회 경보위, 美트럼프 시대 한미 현안 논의

요컨대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이 야기할 동북아 역내 질서와 힘의 분포가 비핵화를 비롯한 한국의 대북정책과 장기적인 통일정책 추진에 있어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인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환기에 있어 대북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과 출구전략으로서의 통일정책을 수립할 수 있느냐의 여부일 것이다. 이를 위해선 장기적인 국가이익 차원에서의 통일지향적 대북정책의 수립이 절실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 및 국내적 차원의 통일에 대한 지지가 지속되도록 끊임없는 소통이 필요할 것이다.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북 군생활 전격 비교!

북한에서도 입대할 때가 되면 남한노래인 '이등병의 편지'가 인기리에 불린다고 한다. 또한, 입대 전 부모는 돼지고기 등 평소 맛보기 어려운 음식들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군에 자녀를 보내야 하는 부모 마음은 남한이나 북한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다. 남북한의 입대 연령을 보면 북한 17~25세, 남한 20~27세로 북한이 좀 더 일찍 군 생활을 시작하는데, 북한의 경우 군 복무 기간이 무려 10년 간 이어진다. 이번호에서는 남북한 청년들의 군 생활에 대해 알아보자.

남북 군 입대 연령



남북 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장(키)은
159~196cm
현역병(3급)

몸무게는 38~97kg



신장(키)은
148cm 이상

몸무게는
43kg 이하

신장

몸무게



※ 1994년 8월 이전에는 150cm 이상
이었으나 식량난으로 키와 몸무게를
낮추었다.)



남북 군 신병훈련

육군



해군



공군



※ 남한의 해병대 신병 훈련은 7주(49일)
특기교육 제외





남북 군 복무기간



※남한 해병대는 21개월
북한 특수부대는 13년 이상



남북 군 휴가제도

정기휴가

육군 24일
해군 27일
공군 28일
해병대 24일

포상휴가

최대 23일



정기휴가

15일

특별휴가

10~15일

자료: 2016 북한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후 남북한 군사력



병력

63만 9,000명

전차

2,400여 대

전투기

450여 대

전투함정

120여 대

통일 전 군사력



병력

119만명

전차

4,200여 대

전투기

820여 대

전투함정

420여 대

통일 전



통일 후

병력

132만900명

국방비

314억 8,400만원

세계 **5위** 예상



병력

35~50만명

국방비

174억9,100만원

※ 긴장관계 해소에 따른 병력 및 국방비 감축 효과

자료 : 2012 국방백서, 아산정책연구원

이슈 in 통일

이슈in통일은 최근 한 달간 주요 언론사들의 통일 관련 소식 중 이슈화 되었던 기사들을 모아 클리핑한 코너입니다.



‘김정은 초긴장’ 한반도 출동할 美 전략무기는?

한미 합참의장이 1일 미국의 전략무기 한반도 투입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실제 어떤 무기가 출동할지 관심이 쏠린다...

[+더보기](#)



“북한-러시아, 나진-하산 철 인프라 확충 논의”(종합)

북한과 러시아가 철도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러시아 철도청 관계자 대표단은 최근 평양을 방문해 북한의 고급 철도인력 양성을 위한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중점 논의했다...

[+더보기](#)



“北 무역일꾼 올해 외화벌이 할당액 배 로 늘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파견된 무역기관 간부나 무역일꾼들이 연말 총화(결산)를 거쳐 올해 초 신년 과제를 할당받았는데 (금액이) 지난해의 200% 정도로 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보기](#)



“미국은 北 문제에 100% 함께할 것”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확장 억제나 전면적인 군사 능력을 동원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며 “당국 간 북핵·미사일 대응 전략 등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더보기](#)



英매체 “北,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10대 국가”

북한이 국제 비영리 싱크탱크 경제평화연구소의 세계평화지수 (GPI)에 근거해 파키스탄, 콩고민주공화국 등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10개 나라’ 중 하나로 꼽힌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



김정은 집권 5년, 파워엘리트 31% 몰같이

《2017 북한 주요인사 인물정보》(인명록)를 분석한 결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집권 후 5년 동안 고위 간부 4분의 1을 몰같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



“北 장마당서 보안원에 샷대질하는 당찬 아줌마 늘어”

최근 북한 관료들의 횡포에 저항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돈을 뜯으려는 교통단속을 무시하거나 장마당에서 보안원이나 시장 단속원과 맞서는 여자들도 늘고 있다는 소식이 다...

[+더보기](#)



민주평통 “사무처에 탈북민 채용... 탈북민 지원도 강화”

민주평통이 사무처 탈북민 채용 및 탈북민들의 남한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10월 셋째 주는 ‘탈북민과 동행하는 민주평통 주간’으로 지정해 지원 사업을 집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보기](#)



北,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2기 제작.. 발사차량 탑재형

한미 군사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4월 실험 장면을 공개했던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 대출력 발동기’ 제작을 완료해 이동식 발사대 차량에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보기](#)



“美, 김정은 이어 김여정도 인권제재... 개인 7명-기관 2곳 추가 제재”

미국 정부는 작년에 김정은을 포함한 15명, 8곳의 기관에 대한 미국 입국 금지, 미국 내 자금 동결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지난달에는 김정은 여동생과 7명, 기관 2곳을 추가 제재했다...

[+더보기](#)



線 넘은 중국... 대한해협 하늘에 한중일 군용기 50대 뒤엉켰다

지난 1월 9일 이어도와 대한해협 인근에서 한·중·일 전투기와 폭격기, 정찰기 등 50여 대의 군용기가 긴급 발진하는 위험한 상황이 펼쳐졌다...

[+더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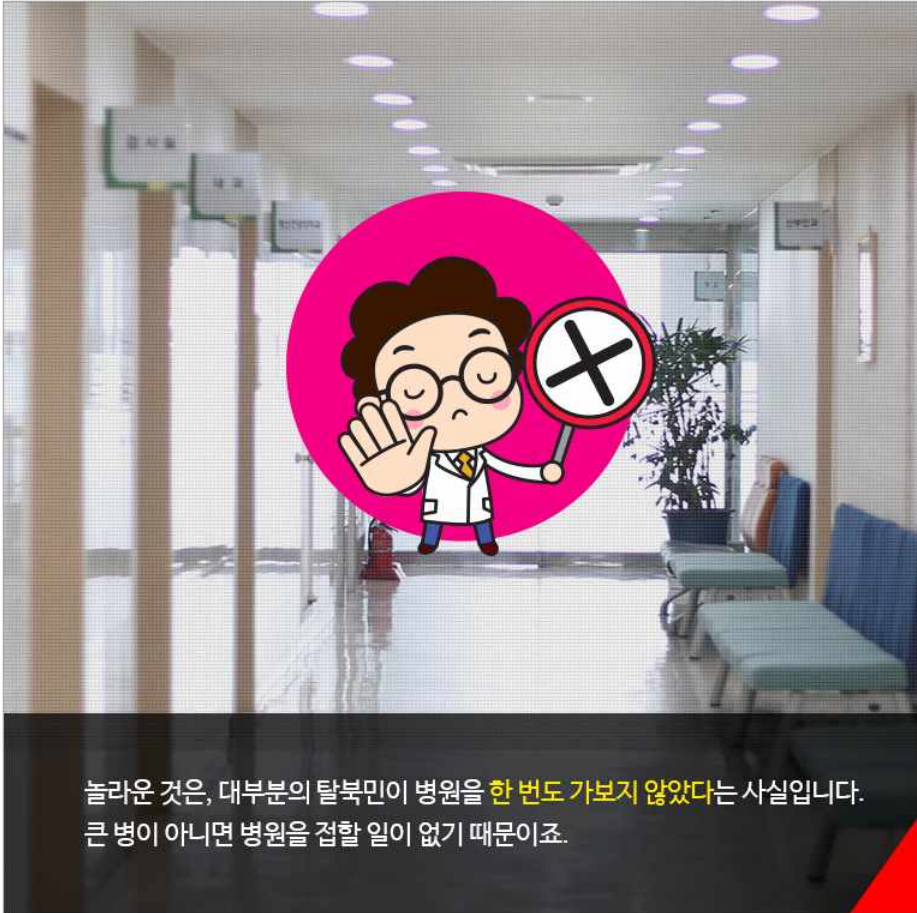
여성 탈북민들의 건강 지킴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오영돈 의무사무관을 소개합니다



오영돈 선생님은

안성 하나원 산부인과
의무사무관입니다.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탈북민이 병원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큰 병이 아니면 병원을 접할 일이 없기 때문이죠.

“잔소리 말고
진통제나 **빨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원 의사 선생님들은 당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북한에서는 배가 아프든, 머리가 아프든, 속이 안 좋든 오로지 ‘진통제’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진찰’이나 ‘문진’의 개념이 없는 까닭입니다.

특히 여성 탈북민들은 몸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생리통이 있거나 어딘가 불편해도
그저 참을 뿐이죠.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아 **폐경 연령**도 굉장히 빠릅니다.
보통은 40대 중반부터 50대 초반, 빠르면 30대 후반에도 폐경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역시 막연히 생리가 끊어졌다고 느낄 뿐 폐경과 함께 찾아오는 증상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영돈 선생님은

“아마도 탈북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불안감이
폐경 이행기에 나타나는 징후들과
구분되지 않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종종 가슴아픈일도 벌어집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몸에 암이 잔뜩 퍼져 있어
하나원을 졸업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는 경우**입니다.

어렵사리 탈북에 성공했는데
즐겁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해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분들입니다.

때문에 가장 시급한것이

의료교육
이라고 합니다.

몸에 대한 지식부터 몸이 아픈 이유는 무엇인지,
병원엔 왜 가야 하고, 검사는 왜 받아야 하는지,
남한의 병원 진료 체계와 의료보험제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
민주주의 사회에서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원에서는

한 기수에 2시간씩 여성건강 강의를 이루어지고,
탈북 중고등학생들에게는 4시간의 청소년성교육 시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때문에 선생님은 탈북민들이 검진을 하러 올 때마다 꼼꼼히 설명해주고,
하나원을 나가서도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라고
여러 번 다짐을 받아낸다고 합니다.

“이제 다 늙었으니, 물러날 때가 됐지요.”

희끗희끗 백발이 성성한 오영돈 선생님은
올해 예순 한 살입니다.

선생님은 27년간 산부인과 임상의를
지내다 탈북민 의료지원을 나갔던 것이
연이 되어 지금의 자리를 지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오 영 돈

현) 하나원 의무사무관(산부인과 전문의)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 산부인과 과장
(2010~2015)
평택 예일산부인과 원장(1988~2010)

‘100세 시대에 60대는 청춘’이나 마찬가지이니
꼭 오래오래 탈북 여성들의 건강을 돌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DMZ 마을 아이들이 만든 통일 영화 이야기 들어 보실래요?

봄방학이 끝날 무렵 대성동초학교 운동장에는 아직도 흰 눈이 소복이 쌓여 있다.
북한과 채 1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 대북방송이 왠지 지껄한 전통시장 소리처럼 들려오는 이곳은 전교생이 30명뿐인
대성동초등학교다. 얼마 전 '제8회 DMZ 국제다큐영화제'에서 초청 상영된 '통일에 관한 짧은 필름'을 만든 주인공들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영화 시나리오 작성부터 연출, 연기, 촬영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만들고 다듬은
대성동초등학교 아이들의 통일 이야기를 들어봤다.



우리들을 소개합니다!



정우진 감독 (6학년)

4학년 때 대성동초등학교로 전학을 왔다. 판소리, 민요 등 국악에 관심이 많고, 무엇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남자 무용수가 되어 한국을 널리 알리고 싶단다.

오형석 PD (6학년)

큰 키 때문에 종종 중고등학생으로 오해를 받지만 올해 졸업할 앞둔 '초당'이다. 과묵한 성격이지만 가끔 어른도 생각하지 못한 세심한 행동으로 만형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김준용 PD (5학년)

소진이 보다 1분 일찍 태어난 쌍둥이 오빠다.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고, 특히 먹는 것에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공부는 그닥!



김소진 작가 (5학년)

준용이의 쌍둥이 여동생. 친구들은 소진이 가 오히려 누나 같다고들 말한다. 공부를 잘 해서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다. 이번 영화의 시나리오와 콘티 스케치를 담당했다.



허재호 PD (5학년)

'통일에 관한 짧은 필름'에서 악역의 진수를 보여준 재호는 '나를 연기파'지만 진짜 꿈은 야구선수가 되는 것이다. 통일이 되면 북한 친구들과 꼭 야구를 하고 싶단다.

동영상 편집을 배우다 시작한 '영화 만들기'

e-행복한 통일 ▶ 재작년 '특별한 듯 특별하지 않은 특별한 이야기'라는 다큐에 이어 이번에는 '통일에 관한 짧은 필름'을 만들었는데, 어떤 계기로 영화를 제작하게 됐나요?

우진 ▶ 2년 전에 컴퓨터 반에서 동영상 편집을 배우던 중 선생님께서 영화를 한번 찍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셔서 시작하게 됐어요. 다큐를 찍어서 영화제에 나가볼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셨거든요. 저는 첫 작품부터 참여했었고 이번 작품이 두 번째예요.

형석 ▶ 그때 몇 명 빼놓고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완성된 영상을 보니까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참여하게 됐어요.

준용 ▶ 저는 소진이(쌍둥이)가 하라고 해서 촬영을 맡았는데, 선생님이 제가 찍은 영상이 좋다고 칭찬해주셨어요.

배우와 스태프를 동시에... 일당백으로 만들어진 다큐 영화

소진 ▶ 저는 선생님과 시나리오 완성하는 것을 도왔어요. 친구들이 낸 아이디어를 엮어서 전체 스토리를 만들고 다듬는 과정이었어요.

재호 ▶ 남학생들은 대부분 촬영을 했는데, 저도 촬영을 담당하면서 극중에서는 북한에서 전학 온 '성국이'와 대립하는 악역을 맡았어요(웃음).



우진 ▶ 제가 북한 전학생 '성국'이었어요. 재호가 악역이라면 소진이 약간 제 편을 들어주는 친구로 등장했죠. 제작 과정에서 촬영감독을 맡았고요.



형석 ▶ 저도 영상 촬영을 했고, 극중에서는 여자 전학생을 기다렸는데 남자인 성국이 오는 걸 보고 실망하는 연기를 했어요. (다 같이 웃음)

준용 ▶ 저는 소진이 하고 대답하는 역할이었어요. 저랑 애들이 북한에서 온 성국한테 '너 진짜 탈북했나?', '너희 학교 어떻게 생겼나?'하고 막 폭풍 질문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제가 성국을 놀리니까 소진이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장면이었어요.

형석 ▶ 저희 말고 어린 동생들도 출연했었어요. 1,2학년 동생들이요.

재호 ▶ 저희 학교는 전교생이 30명뿐이라 거의 1인 다역을 해야 됐어요. 그래도 재미있었어요.

6분짜리도 40컷이 넘는 고단한 영화의 세계를 아시나요?

e-행복한 통일 ▶ 영화를 촬영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나 느낀 점이 있나요?

재호 ▶ 영화를 만들기 전에 영상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영화 관련 전문 용어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너무 어려웠지만요.

우진 ▶ 장상국 선생님이 카메라 다루는 법부터 콘티 짜는 법, 대사 쓰는 법 같은 영화 수업을 해주셨거든요.

소진 ▶ 저는 출연하는 것보다는 촬영에 필요한 소품을 구하거나 콘티 그리는 것이 더 재미있던 것 같아요.

준용 ▶ 언제 그렸는데?

우진 ▶ 아…… 진짜. 너는 소진이 가족인데 왜 너만 몰라. 우리 다 아는데.



준용 ▶ 저는 대성동 토박이라 영화에서 마을 장면을 담는 촬영을 했는데, 풀이 많아서 더 멋지게 못 찍은 게 아쉬웠어요.

형석 ▶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달아서 자주 엔지가 났던 기억도 나요.

우진 ▶ 맞아요. 모처럼 잘 찍었는데, 배터리가 꺼져서 다시 찍는 일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5월부터 시나리오를 짜서 촬영을 시작했는데, 한여름에 찍다보니 엄청 덥고 힘들었어요. 카메라도 너무 무겁고요.

형석 ▶ 저희가 6분짜리 영상을 만드는데 40컷 넘게 찍었거든요. 같은 장면을 찍고, 또 찍는 게 무지 힘들더라고요. 개봉 영화들은 보통 2천 컷을 찍는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찍죠? 보기만 할 때는 몰랐는데 직접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진 ▶ 가장 좋았던 건 마지막 촬영을 마쳤을 때예요. 제일 어려운 장면이 교실에서 다투는 씬이었는데, 그걸 맨 나중에 찍었거든요. 그걸 끝내고 나니까 뭔가 다 끝났다는 짜릿함이!

다큐 ‘특별한 듯 특별하지 않은 특별한 이야기’를 연습장 삼아

e-행복한 통일 ▶ 2015년에 만든 작품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우진 ▶ 재작년 작품은 ‘특별한 듯 특별하지 않은 특별한 이야기’라고 저희가 생활하는 모습을 인터뷰로 엮어서 만든 다큐였어요.

재호 ▶ DMZ 안쪽에 있는 대성동 자유마을과 저희 학교의 좋은 점, 통일에 대한 생각 같은 걸 담았어요. 저랑 우진이는 그때 인터뷰를 했는데, 우진이는 제작에도 참여했어요.

우진 ▶ 근데 이번 작품이 훨씬 잘 만들어졌어요. 재작년 작품은 이번 작품을 위한 ‘연습장’이었다고 해야 하나?

준용 ▶ 아쉬웠던 건 떡볶이 장면을 못 찍은 거였어요. 저희 마을에는 분식집이 없거든요. 군부대에 매점이 있긴 한데, 거긴 너무 늦게 열어서 찍을 수가 없었어요.

우진 ▶ 떡볶이 이야기 하나까 생각났어요. 마지막 장면이 다 같이 축구하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엔딩은 축구를 하고 다 같이 떡볶이를 먹는 씬이었어요. 준용이 말처럼 떡볶이를 파는 곳이 없어서 못 찍었지만요(웃음).



통일이 돼 북한 친구가 전학 오면 같이 백두산에 갈래요!

e-행복한 통일 ▶ 통일이 돼서 북한 친구들이 놀러온다면?

소진 ▶ 저는 통일이 되면 전학 온 북한 친구랑 같이 백두산에 가보고 싶어요. 스마트폰으로 게임도 같이 하고요.

준용 ▶ 백두산? 아마 다리가 아플 걸……. 저는 북한 음식 여행을 할 거예요. 북한 친구한테 어떤 음식이 맛있는지 물어보고 같이 먹으러 다니면 좋잖아요. 북한 음식을 다 먹어본 다음에는 다른 나라에 가서도 모든 음식을 맛보고 싶어요.



소진 ▶ 너는 먹는 걸로 시작해서 먹는 걸로 끝나냐? (웃음바다)

재호 ▶ 제가 영화에서는 통일을 싫어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실제로 통일이 되면 오히려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아요. 북한에 있는 특별한 장소도 가볼 수 있고 같이 야구도 할 수 있잖아요.

형석 ▶ 통일이 되면 좋은 점이 많아요. 북한에는 자원이 많고, 우리나라엔 기술이 많잖아요. 이게 합쳐지면 엄청난 경쟁력이 생기지 않을까요?

우진 ▶ 처음 영화를 찍을 때만 해도 저는 통일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통일이 되면 지원금이 많이 들 거 같아서요. 그런데 영화를 찍고 보니까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통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 민족이 떨어져 사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준용 ▶ 북한 친구들이 다른 학교에 가면 불편할지 몰라도 저희 학교에 오면 관심을 거예요. 환경도 가깝고 애들도 착하니까.

우진 ▶ 제가 4학년 때 전학을 왔는데, 처음엔 누구나 혼자 갖고 어색하잖아요. 근데 여기 친구들이 진짜 착하고 잘해줘서 금방 친해졌어요. 아마 북한 친구들이 오면 잘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통일 그리고 대성동

e-행복한 통일 ▶ 이 영화를 통해서 무얼 보여주고 싶었나요?

재호 ▶ 북한에 대해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통일'과 '대성동'에 대해 알려주고 싶었어요. 통일이 왜 필요하고, 대성동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를 것 같아서요.

우진 ▶ 영화를 찍으면서 마을 어른들의 힘을 빌려야 할 때가 있었어요. 다행히 부대에서 허락을 해주셔서 무사히 촬영도 하고, 여기 사시는 할머니한테 옛날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런 과정들 모두가 통일을 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준용 ▶ 저는 대성동에 사는데, 사람들이 '장단콩축제' 같은 것이 있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 걸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었던 것 같아요.

소진 ▶ 사람들은 대성동이 지도에 없는 마을이고 통제구역이라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크게 다른 것은 없어요. 북한 사람도, 이곳 마을도 다 같은 한민족이고, 사람 사는 곳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북한 정월대보름의 부활

이준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북에서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정월대보름을 민속명절로 보내고 있다. 남북이 둘로 갈라진지는 장장 70여 년이 지났지만, 우리 민속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런 일이다. 물론 북한에서는 정월대보름이 사라졌다 생기기를 반복하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봉건잔재를 없애고자 1974년 정월대보름 쇠는 것을 금지시켰지만 극심한 경기침체로 2001년 다시 부활시킨 것이다.



정월대보름을 민속명절로 금지한 이유

왜?

정월대보름은 한 해가 시작되는 음력 첫 달을 뜻한다. 북에서는 이날에 살쥔 달을 보며 한 해 소원을 빌면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이런 정월대보름이 민속명절로 금지된 것은 1974년 '당의 유일사상 체계확립 10대 원칙'이 발표되면서부터다. '하나님'께 소원을 빌다는 것은 수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일이며, 사회주의의 생활양식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당조직과 근로단체 조직들은 끈질기게 배척 사유를 선전했다. 하지만 당국이 아무리 선전을 해도 주민들은 '사상은 무색이라 보이지 않는다'는 일념으로 전통을 끈기 있게 지켜왔다. 세대가 바뀌어도 부모는 자식이 잘되길 바라고, 자식은 부모가 장수하기 바라는 뿌리 깊은 사랑을 한해가 시작되는 정월대보름에 빌며 아름다운 의미를 되새겨온 것이다.



경기 불안으로 재탄생한 북한의 정월대보름



대보름 민속놀이 즐기는 북한 어린이들

1994년부터 시작된 북한의 '고난의 행군'은 돈 없고 권력 없는 사람들의 생명을 수 없이 앗아갔다. 그래서 정월대보름만큼은 한 끼를 배불리 먹고 신령님 품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맹물을 떠놓고 '새해에는 제발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해달라'고 비는 사람들이 많았다. 즉 북에서 정월대보름이 재탄생한 이유는 경기가 불안한 남한 사회에 로또 구매자수가 늘어나는 현상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국가가 배급을 못하고 생존의 불확실성이 커가자 김정일도 태도를 바꿔 정권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나 신령님을 탓하라는 의도로 정월대보름을 부활시킨 셈이다.

북한의 정월대보름 허용은 사람들이 잘 살고 못 사는 원인을 '숙명'으로 간주해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희망을 두게 하는 계기가 됐다. 이후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낮에는 장군님, 밤에는 하나님'이라는 정월대보름 유머가 생겨나기도 했다.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한 6.15공동선언 이후에는 당이 남북간 왕래와 교류의 활성화를 전망하고 민족중속을 이어간다는 의미를 내세워, 북한이 남한보다 민족명절을 더 크고 의미 있게 즐긴다는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기도 했다.

건강·진급·부를 비는 권력층의 정월대보름

북에서는 정월대보름날 아침에 오곡밥과 아홉 가지 나물, 귀밝이술을 한 잔씩 즐겨 먹는다. 오곡밥은 신체의 오장을 든든하게 하고, 아홉 가지 나물은 90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하라는 뜻이며, 귀밝이술은 한 해 동안 귀를 밝게 해준다는 의미이다. 때문에 이날만큼은 주부들이 어떻게든 대보름 음식상을 보는 풍습이 있다. 음식상은 계층별로 천차만별이다. 권력층은 승용차에 잘 삶은 돼지머리와 고급 양주, 남방 과일 등을 싣고 풍수지리가 좋은 장소에 가서 건강과 진급을 바라는 소원을 빈다. 간부가 직접 나가기보다는 아내나 자식들이 대신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간부들이 직접 나서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부유층은 재산을 지켜주고 잡혀가지 않기를, 중산층은 한 해 동안 불법을 들키지 않고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빈다. 가족이나 친척, 가까운 지인이 정월대보름 전에 사망했을 때는 망자의 명복을 빌기보다 죽은 사람이 자기들에게 다가올 불행을 다 안고 가라는 비윤리적인 소원을 빌기도 한다.



정월대보름에 먹는 오곡밥



아홉가지 나물

모란봉 을밀대에서 올리는 서민들의 '신령님 제사'

최하층민들의 정월대보름 풍습은 조금 다르다. 이날만큼은 최하층이라는 신분을 벗어나 직접 스스로 '신령'이 되어 품을 잡고 정월대보름을 만끽하는 것이다. 밤 12에 맞춰 거행되는 '보름달 신령님 제물 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잤에 잠을 자 두기도 한다. 제물 행사는 북한 전 지역에서 펼쳐지는 풍습이다. 특히 평양 중심가인 모란봉 정상 을밀대를 제일 좋은 명당자리로 여긴다. 절벽 아래로 대동강이 감돌기 때문이다. 최하층민들은 보통 밤 10시부터 이곳에 올라 검은 담요를 뒤집어쓰고 기다리다가 다른 사람들이 밤 12시에 나무 밑에서 제를 올리고 내려가면서는 '제물 수거'를 시작한다. 간혹 신령님 제물을 대동강에 던지는 심보가 나쁜 행인들이 있는데, 그 경우 아래서 대기하고 있던 자녀들이 가서 수거해오도록 한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문제로 싸움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무리를 지어 조직적으로 공동으로 수거해오고 있다.

이렇게 수거된 제물은 공동분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비양심적인 행동을 일삼는 이들이 있다. 아마도 정월대보름이 안고 있는 '밤'이라는 특성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정월대보름은 한 해 소원을 위해 소원 성취를 위해 성의를 다하는 소위 '있는 사람들'과 그 제물을 하룻밤 사이에 다 가져다 먹으려는 '뻘집 큰 신령님(?)'들 모두에게 기다려지는 날이기도 하다. 하지만 신령님께 올리는 제물을 훔쳐 먹으면, 노하신 신령님께 벌을 받는다는 상식조차 뒤엎은 '창조자(빈민층)'들의 모습을 보면 씁쓸하지 않을 수 없다. 정월대보름의 밝은 달빛이 서민들에게만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루 빨리 통일을 이루는 것도 우리의 역사적 임무라고 할 수 있다.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탈북민’ 편견 없애고 소통으로 하나된 중소기업 근무 7년 차 최강국 과장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의 공장. 최강국 씨가 남한에 오롯이 정착하기까지 7년 여의 세월을 보낸 곳이다.

이 기업에서 강국 씨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이 됐다. ‘배려 받아야 하는 탈북민’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젊은 남한 청년들에게 인생의 조언을 들려주는 든든한 선배이기도 하다. 이젠 ‘대구사람 다 됐다’는 최강국 씨를 만나보자.



입업기계공장 경험을 바탕으로 중장비 자격증 취득

2008년도에 남한으로 온 최강국 씨는 사회에 나오자마자 직업전문학교에 등록해 중장비기술 자격증들을 줄줄이 따냈다. 북한에 있을 때 헤림농림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인 입업기계공장에서 일했던 경험이 바탕이 됐던 것. 당시 중장비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장려금이 지원되던 상황이라 ‘남한 정착과 취업에 이만한 기회도 없으리라’는 생각에서 6개월 동안 직업전문학교 중장비반을 수료하고 포크레인, 지게차, 로드 등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했다.

하지만 비교적 수월하게 자격증을 땀던 것과 달리, 정작 직장생활은 순조롭지 않았다. 신입사원으로 입사했기 때문에 직장 내 직위가 높은 젊은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그때 마침 친구가 좋은 소식을 전해왔다. 아는 사람이 자동차부품 제조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계에 대한 이해와 기술력이 있는 강국 씨를 스카웃 하고 싶다는 제안이었다. 강국 씨가 북한에서부터 갈고 닦아온 기술과 경력을 인정해준다니 참 고마운 일이었다.



직원 5명에서 20명으로, 알차고 탄탄한 회사에 7년간 몸 담아

그렇게 입사했던 회사는 최강국 씨에게 7년간의 보금자리가 됐다. 회사는 당시 5명으로 출발했지만 이제 20명의 직원들이 함께 하는 어엿한 중소기업이 됐다. 15명의 후배들이 생긴 셈이다. 강국 씨는 어깨가 그만큼 무거워지긴 했지만 그 무게감이 한편으로는 좋게 느껴진다고 말한다.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튼튼한 밑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강국 씨는 이곳에서 신차에 들어가는 부품 등을 디자인해 제조, 납품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작년에 새로운 모델의 차가 많이 나와서 엄청 바빠진 했지만, 길에서 저희가 만든 차량등을 보면 그것만큼 뿌듯한 일도 없더라고요. 밤에 차들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우리 손때가 묻은 차량등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퇴근길에 우리가 만든 차량등이 어디 있는가만 찾아보게 돼요(웃음).”

강국 씨가 한 곳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었던 데는 동료들과 이문수 대표의 힘이 컸다. 동료들은 강국 씨가 복에서 온 사람이라고 차별하거나 의식하지 않았고, 이문수 대표는 변치 않는 믿음으로 강국 씨와 함께 회사를 일궈왔다. 강국 씨는 이문수 대표를 “납품일자를 잘 지키고 맡은 일을 확실하면 해낸다면 웬만해서 잔소리는 안 하는 분”이라고 소개하며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만큼 챙겨주고 야유회나 희식도 빠뜨리지 않으니 이만한 회사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장님 역시 강국 씨와 일하면서 탈북민에 대한 편견이 깨졌다. 처음엔 솔직히 반신반의로 채용했지만 지금껏 지켜봐 온 강국 씨는 누구보다 배려심이 많고 적극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게다가 리더로서의 자질도 충분하단다.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동료들을 다독이며 잘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회사대표 입장에서 볼 때 최강국 씨는 진짜 인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최 과장이 남한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죠.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서더라고요. 우리 신참들에게는 조언도 해주면서 부드럽게 리더십도 발휘하고요. 인품이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강국 씨만 놓고 본다면 저는 다른 회사에도 탈북민 채용을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모든 덕은 스스로 맘 흘린 만큼 따라오는 법

강국 씨는 “모든 일은 맘 흘린 만큼 얻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해야 할 일이 적진 않지만, 열심히 한만큼 그만큼 보수가 따라오는 것이 대한민국의 장점인 것 같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종종 한 번에 큰 욕심을 내는 탈북민 친구들을 보면 마음이 안타깝다.

“쉽게 얻어지는 게 뭐 있나요? 저는 뭐든 내가 한 만큼 얻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쉽게 돈을 벌려고 하면 오히려 멀리 돌아가게 되니까요.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지 말고 차근차근 성취해나가는 것이 제일 좋은 정착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북에서 건너오긴 했지만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는 생각이다. 때때로 탈북민에 대해 편견을 갖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일부 남한 사람들의 태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느냐는 탈북민 스스로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강국 씨는 사람을 사귀는데 망설임이 없다. 족구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제 5년 지기 친구나 다름없고, 3년 전 자율방범대 활동을 함께 했던 한 '형님'은 강국 씨의 멘토 같은 분이다. 모두들 강국 씨가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부모처럼, 형제처럼 따뜻한 벗이 돼주고 있다.

내년이면 강국 씨가 남한에 들어온 지 교박 10년이 된다. 요즘은 어딜 가도 '대구 토박이'라는 소릴 듣지만, 여전히 명절만 되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사무치게 그립다. 강국 씨는 선배의 가족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나섰다가 보위부에 잡혀 들어갔고, 이후 두 달여 만에 북한을 떠나온 뒤로 가족들을 볼 수 없었다. 세 남매 중에 큰 형님이 얼마 전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얘길 들었고, 북에 있는 누이와 작은 형님 소식도 3년 전 들은 게 전부다. 그래서 강국 씨는 남은 가족들이라도 생전에 만나볼 수 있도록 하루빨리 통일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끝으로 최강국 씨에게 앞으로의 목표, 꿈이 무엇인지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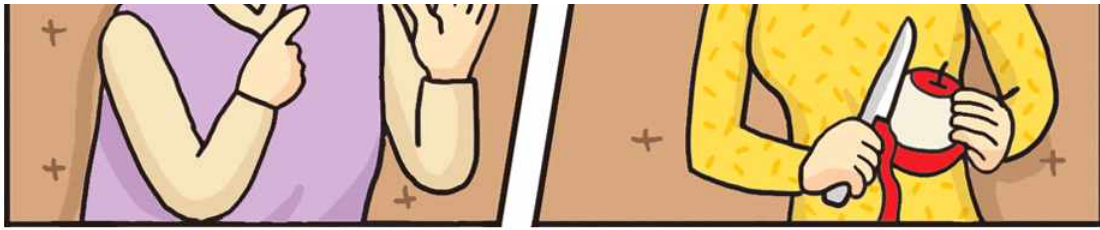
저는 그냥 여기서 안전하게 퇴직하는 게 꿈입니다. 돈도 열심히 모으고요. 통일이 되면 형님, 누이 모셔다가 오붓하게 살아야죠. 그리고 막상 통일을 이루고 나면 우리 탈북민들의 역할이 정말 클 거라고 생각해요. 남북한 사람 서로가 마음을 맞추는 게 우선이니까요. 분단 기간동안 서로 갖고 있던 오해나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둘 간의 차이를 극복해나가는 데 있어 탈북민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즐겁게 살아 보렵니다.”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일한국, 어르신 일자리가 늘어났어요!

글. 권혜리/그림. 이택중





그래요 할머니. 아무래도 서울이 병원도 더 가깝잖아요~.

무슨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함경도에서 서울까지 통일열차타면 몇 시간이나 걸린다고!

또 요새는 원격의료시스템도 잘 되어 있어서 우리 손주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긴 통일 후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더 많아졌다고 하더라구요.

그래~. 나도 시골가면 북한출신 아이들에게 남한 말이나 동화를 읽어 주는 이야기 할머니가 돼볼 생각이란다.

이야기 할머니요? 우리 할머니가 해주는 옛날이야기도 재밌는데!

그렇지! 할미가 행복이보다 어린 동생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고, 할아버지는 고향 친구들도 만나고 그럼 얼마나 재밌겠니~. 방학 때가 되면 행복이도 시골로 놀러올 수 있고 말이다. 북한 함경도에는 행복이가 못 가본 관광지도 엄청 많단다.



야호!
그럼 우리 당장 가요!!



뿌얇게 퍼지는 입김마저 투명해지는 깊은 겨울에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고 읊조리던 시인의 목소리가 그리워지고, 가을의 옷자락이 계절에 머물 때면 구수한 아리랑 가락에 맞춰 덩실덩실 춤추던 가족의 모습이 떠오른다. 봄 감자 몇 알을 손에 쥐고 짝 사랑하던 사내아이의 면박을 주던 계집아이 짱한 목소리와 지줄대는 실개천의 풍경을 상상하다 보면 어느새 연초록 봄이 성큼 다가온 듯도 싶다.

2017년에는 책과 음악, 영화 그리고 시간의 세례를 받은 역사의 현장 속 특별한 풍경을 '문화'란 이름으로 묶어 찾아가 본다.

깊고 고요한 그 겨울...

강원도 원주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하여졌다.'

깊은 어둠의 끝에서 단숨에 시야로 쏟아져 들어온 빛 무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기어이 눈을 잠시 감았다 떴야했다. 그야말로 순백(純白)의 세상. 잠시의 공백도 견디지 못해 조바심 내던 눈송이들이 진한 겨울에 제 흔적을 남기는 모양새를 따라하듯 순결한 눈길 위로 힘주어 발자국을 남겨본다. 숨소리 한 번에도 나풀나풀 울어지는 눈꽃을 따라 떠난 원주의 겨울은 청명하고 고요했다.

소박하지만 온건한 온기, '용소막성당'

듬성듬성 펼쳐진 눈밭과 울망종말한 시골마을 그리고 이따금 등장하는 콘크리트의 건물 숲. 원주는 전형적인 지방 중소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희끄무레한 눈밭이 휘날리는 겨울이 깊어질수록 도심은 더 없이 서정적인 얼굴로 방문객을 맞이한다. 그리고 그 동화 같은 겨울 풍경의 한 쪽에는 붉은 벽돌이 인상적인 아담한 성당이 자리하고 있다. 누군가 겨울의 원주를 찾는다면 꼭 한 번 들려보라 추천해줬던 성당의 첫 인상은 소박하지만 온건했다.

여러 번 흔들여 놓은 스노우볼 속 세상처럼 눈보라가 휘몰아칠 때면 성당 주변의 150여 년의 수령을 자랑하는 느티나무 가지 위로 눈꽃이 피었다 사라지길 반복한다. 1904년 설립됐다는 성당은 첫 인상만큼이나 내부의 모습 또한 아늑했다. 종교를 떠나 긴 세월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장소는 추위에 얼어붙었던 손끝이며 두 뺨을 살그머니 녹여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 제 온도를 찾기 시작한 손가락 끝부터 시작해 심장까지 간지러워진다.

성당 주변에는 울창한 송림과 더불어 유물관도 자리하고 있다. 유물관에서는 문화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성경을 한글과 영어는 물론 라틴어, 독일, 러시아 등 세계 여러 나라 버전으로 관람할 수 있어 특별한 경험이 된다.

설국(雪國)의 고요, 뮤지엄 '산'

쉽 없이 쏟아지던 눈발의 기세가 누그러질 즈음 안전한 온기를 품은 성당을 뒤로 하고, 더 고요한 설국(雪國)으로 향한다. 치악산 인근 스키장이 위치할 만큼 높은 지대에 위치한 미술관이 가까울수록 도심의 분주함이 멀어져간다. 세계적인 건축가가 고박 8년의 세월을 거쳐 지었다는 뮤지엄 '산'은 그 안팎 어느 한곳 공들이지 않은 곳이 없다. 웰컴센터를 지나 본관으로 이어지는 길목은 시시각각 물들어가는 계절의 변화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봄·여름이면 온순한 꽃잎이 흐드러지고, 가을엔 붉게 달아오른 단풍을 곱다는 곳으로 발을 내딛는다.

보드라운 보이는 눈발을 제외하고 보이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높낮이가 다른 산등성이 뿐. 오롯이 마주한 겨울은 춥고, 적막하고 평온했다. 숨소리마저 차분해지는 공간 속 비워내고자 하는 의지조차 비워진 가슴 위로 새하얀 눈송이가 쌓여간다. 그리고 행여 펼쳐진 눈발을 밟을까 조심스레 발길을 옮겨 커 큰 자작나무 숲 사이를 지나면 그 제야 본관이 시야에 들어온다.

세련된 미술관 외관에 주춤하기도 잠시 추위에 쫓겨 들어선 갤러리 내부는 상상만큼 어렵거나 딱딱한 분위기는 아니었다. 미술관의 전신이 종이 전문 박물관이었던 만큼 옛 감성을 떠올리게 하는 공예품과 전격류의 상설전시를 비롯해 신라 고분을 모티브로 한 스톤가든, 빛과 공간의 예술가 제임스 터렐의 특별전 등 다양한 볼거리는 물론 전시관과 전시관 사이의 복도마다 벤치를 두어 통 창문 너머 풍경을 오래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콘크리트 내벽에 등을 대고 앉아, 차분히 겨울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다면, 한파를 핑계로 투덜댔던 것이 미안할 만큼 올라가는 계절이 아쉬워진다. 이 계절의 끝에 새 계절이 오고, 그리하여 다시 겨울이 찾아온다 해도 오늘의 이 겨울은 아닐 것을 알기 때문이다.



뮤지엄 산의 자작나무 길



뮤지엄에서 바라본 전경



뮤지엄 내부 전시실



어제를 살아간 그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박경리문학공원'

그렇게 하루 종일 지지도록 바라본 하얀 설경 덕분에 조금쯤은 이해 시시때때로 덜컹대던 심장과 과부화 상태였던 머릿속도 차분하게 가라앉는다. 쉽게 달아오르고 식기를 반복했던 감정이 느슨해진 틈을 타 학창시절 좋아했던 여러 작가의 흔적을 쫓아 원주 시내로 향해본다.

파란만장한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여러 계층의 이야기를 담아낸 대하소설 '토지'. 이제는 고인이 된 작가 박경리가 장장 25년에 걸쳐 집필한 토지의 마침표를 찍은 곳이 바로 원주이며 그래서 이곳에는 작가의 옛 집과 작가의 이름을 딴 문학공원이 자리하고 있다. 발을 일구고 글을 썼다는 작가의 소박한 일상이 그대로 묻어나듯 옛집과 문학공원 어느 쪽도 소박한 규모를 자랑한다. 그래도 '토지' 속 배경을 그대로 옮겨 놓은 3개의 테마 공원과 죽기 전 여생의 마지막을 보냈다는 옛 집에서는 친필 원고 등을 관람할 수 있어 한번쯤 둘러볼 만하다.



박경리기념관 내 전시물



작가의 옛집



박경리기념관 내 전시물

황해도의 강추위 콩심으로 녹인다, 얼린 콩죽

함경도 지방은 산세가 험한 산간지대로 이뤄져 있다 보니 구황작물인 콩, 조, 귀리, 감자 등을 재배하는 발농사가 주로 발달했다. 덕분에 알이 굵고 고소한 맛이 강한 콩이 특산물로 손꼽힌다. 콩을 조리해 만든 모두부에 양념을 더해 먹는 두부회나 장 요리인 북장 등이 유명하지만, 겨울철 입맛이 없을 땐 콩죽을 즐겨 먹는다고 알려져 있다. 추워질 무렵 콩을 불려서 얼려두었다가 쌀과 함께 쑤어낸 콩죽은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도 똑딱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요리다.



요리재료

쌀 200g, 얼린 흰콩 200g, 감자 2/3개, 소금 약간, 물 10컵

Step 1



쌀은 흐르는 물에 잘 씻어준 뒤 물에 재어 불린다.

Step 2



얼어있는 콩은 믹서에 갈아준다.

Step 3



쌀이 어느 정도 불어나면 냄비에 물과 함께 붓고 중불로 끓인다.

Step 4



죽이 끓으면 콩가루를 풀어 넣고 함께 끓여준다.

Step 5



감자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 넣고 한소끔 끓여준다.

Step 6



물이 줄어드는 양을 살핀 뒤, 소금을 넣고 간을 맞춰주면 완성

죽, 북한 주민들의 애환을 담다

한반도의 북쪽지방은 남쪽보다 평야가 적어 예부터 잡곡을 활용한 죽 요리가 발달했지만, 고난의 행군 시기를 지나오면서 부족한 알곡의 양을 보려주는 음식으로 변화했다. 까리죽, 강냉이죽 등의 죽 요리는 어느새 주민들의 어려움을 상징하는 음식으로 자리했다.

◆ 옥수수가 알알이, 통강냉이죽

통강냉이죽은 알을 발라낸 옥수수과 콩을 물에 불린 뒤 불에 익히면 간단히 완성된다. '북한의 식량난이 심해 강냉이죽을 먹는다'는 이야기가 남한에도 유명해질 만큼 북에서 즐겨 먹던 음식이다.

◆ 감자껍질로 죽을? 까리죽

알곡이 부족한 봄철이 되면 북한에서도 가난한 주민들은 말린 감자껍질로 죽을 끓여먹었는데, 이를 까리죽이라고 불렀다. 맛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배를 채우고자 먹는 까리죽은 탈북민들이 출연하는 예능 프로에 소개돼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민주평통 뉴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통일운동 중심체로서 통일정책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건의 하는 것을 비롯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확산하고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매경한고(梅經寒苦), 위기를 기회로 삼자 '2017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및 신년회'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 1월 1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2017년 정유년 새해를 열었다. 참배식에는 유호열 수석부위원장, 권태오 사무처장, 수도권 운영·상임위원, 협의회장, 사무처 간부 등 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아침 일찍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헌화 및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참배 후 대회의실에서 가진 '2017년 신년 인사회'에서 유호열 수석부위원장은 신년사 메시지로 '매경한고(梅經寒苦)'를 제시하며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위기를 기회로 삼아 도약해왔으니, 현재 국내외 과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가면 국가 발전과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신년사를 전했다. 이어 오찬을 함께하면서 새해 소망을 나누고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양주 지역 호주, 뉴질랜드서 '2017 신년하례식 및 통일강연회' 개최



민주평통 호주협의회와 뉴질랜드협의회는 지난 1월 12일과 16일 시드니와 오클랜드에서 각각 '2017 신년하례식 및 통일강연회'를 열었다. 이번 강연회는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이후 변화된 남북관계 속에서 재외동포들의 역할을 인식하고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교민과 사회단체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호주 강연회에서는 의장표창 수여식과 호주협의회 활동보고, 권태오 사무처장 특강 등이 있었다. 이날 강연에서 권태오 사무처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조치로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결정했다”고 말해 한반도의 사드에 대한 교민사회의 이해를 도왔다. 뉴질랜드 강연회에는 멜리사 리 국회의원, 각 한인단체 대표, 교민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멜리사 리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자문위원들과 함께 통일을 위한 의지를 모아갔다”며 “북한 인권이 개선되고, 한반도 통일이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올해 '탈북민 동행 주간', '민주평통 아카데미' 등 역점사업 추진 운영위원회 개최,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심의



민주평통은 지난 2월 2일 사무처 회의실에서 제139차 운영위원회(위원장 유호열 수석부의장)를 개최했다. 17개 시·도 부의장, 이북5도부의장, 여성부의장, 분과위원장, 직능운영위원, 해외 미주부의장, 중국부의장, 사무처장,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는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 △민주평통 운영에 관한 사항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유호열 수석부의장은 개회사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그동안 17기 민주평통이 헌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소임을 잘 수행해 왔던 것처럼 남은 임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자”고 당부했다. 권태오 사무처장은 올해 유사 중복사업을 큰 틀에서 조정하고,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심화 발전시킨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 ‘통일 대한민국 미래상 단막극 제작·방영’, ‘탈북민 동행 주간(週間) 운영’ 등의 역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탈북민 동행 주간’에는 탈북민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봉사활동,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며, 18기 자문위원 위촉은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세부 인선기준을 마련해 통일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사가 위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일시대 시민교실, 포럼, 강연회



▲ 신년 통일안보 강연회(서울 광진구협의회)

서울 광진구협의회(회장 최복수)는 1월 23일 북한이탈주민, 보호단체 회원 등과 함께 북한 북한전문가를 초청해 '신년 통일안보 강연회'를 개최했다.



▲ 정유년(丁酉) 해맞이 평화통일염원 풍선 날리기(부산 수영구협의회)



▲ 안산시태극기사랑운동본부 MOU 체결식(경기 안산시협의회)

부산 수영구협의회(회장 김중수)는 1월 1일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맞아 '8천만이 행복한 통일'이라는 문구가 적힌 풍선을 나누며 조국의 평화통일을 염원했다. 경기 안산시협의회(회장 유오복)는 1월 16일 안산시 태극기 사랑 운동본부 우두명 대표와 임원진,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나라사랑 함양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설맞이 북한이탈주민 행복나눔 성품전달 및 간담회 (부산 사하구협의회)



▲ 설맞이 북한이탈주민 사랑나누기(대구 동구협의회)



▲ 북한이탈주민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및 설맞이 나눔 행사(충북 옥천군협의회)

부산 사하구협의회(회장 백백식)는 1월 16일 구청에서 대행기관장과 사하경찰서 관계자, 북한이탈주민 등과 함께 '설맞이 북한이탈주민 행복나눔 성품전달 및 간담회'를 개최했고, 같은 날 대구 동구협의회(회장 송진오)는 대구동부경찰서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2017 설맞이 북한이탈주민 사랑나누기'를 행사를 열었다. 충북 옥천군협의회(회장 과국상)는 20일 북한이탈주민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및 설맞이 나눔 행사를, 부산 중구협의회(회장 임무성)는 17일 중구노인복지관에서 관내 소외계층 가정을 초청해 '설맞이 사랑의 선물 전달식'을 가졌다.



▲ 설맞이 사랑의 선물 전달식(부산 중구협의회)



▲ 설날 북한이탈주민 위로품 전달 및 통일간담회 (부산 해운대구협의회)



▲ 설맞이 북한이탈주민 떡국 떡 나눔행사 (경기 김포시협의회)



▼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설맞이 경 나누기 (경북 영주시협의회)



▲ 북한이탈주민 설맞이 격려물품 전달(제주 서귀포시협의회)

부산 해운대구협의회(회장 정현태)는 1월 23일 지역 북한이탈주민 141세대에 705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특산품을 전달했고, 경기 김포시협의회(회장 최선희)는 21일 김포경찰서와 함께 지역 북한이탈주민에게 떡국 떡을 선물했다. 경북 영주시협의회(회장 정주현)는 22일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설맞이 정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고, 제주 서귀포시협의회(회장 이경용)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양춘열)는 20일 지역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과일과 식료품 등을 전달했다.

▼ 설맞이 북한이탈주민 위문(강원 횡성군협의회)



▲ 설명절 북한이탈주민 나눔행사(강원 동해시협의회)



▲ 설맞이 북한이탈주민 상품 전달식(부산 부산진구협의회)



▲ 설맞이 탈북민 가정방문 물품 전달(전남 장성군협의회)

강원 동해시협의회(회장 김홍수)는 1월 23일 동해경찰서에서 북한이탈주민 30세대와 설명절 북한이탈주민 나눔행사를 실시했고, 부산 부산진구협의회(회장 백옥자)는 24일 부산진구 여성사회복지분과위원회와 함께 부산진경찰서에서 북한이탈주민 20여 세대를 대상으로 '2017 설맞이 북한이탈주민 상품 전달식'을 가졌다. 강원 횡성군협의회(회장 조원용)는 24일 횡성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횡성청년회회소 등과 함께 조곡리에서 북한이탈주민 23명에게 설 선물을 증정했고, 전남 장성군협의회(회장 안숙자)는 25일 탈북민 가정을 방문해 식료품을 전달했다.



▲ 설명절 북한이탈주민 떡나눔 행사(충북지역회의)



▲ 설맞이 북한이탈주민 사랑의 성금 및 선물 전달식 (서울 마포구협의회)



▲ 북한이탈주민 설명절 위문행사(충남 당진시협의회)

충북지역회의(부위원장 한상길)는 1월 22일부터 2일간 북한이탈주민협회(새삼인협회, 여명협회)를 찾아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가래떡을 선물했고, 서울 마포구협의회(회장 김성우)는 24일 성금과 선물을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전했으며, 충남 당진시협의회(회장 윤수일)는 24일 당진경찰서에서 보안협력위원회와 함께 지역 북한이탈주민을 초청해 명절맞이 위문품 전달식을 가졌다.



▼ 통일 간담회(충북 충주시협의회)





▲ 설맞이 북한이탈주민 사랑나눔 성품전달식 (부산 동래구협의회)



▲ 북한이탈주민 명절 위문 및 선물전달 (경남 통영시협의회)



부산 동래구협의회(회장 이태희)는 23일 동래경찰서에서 설맞이 북한이탈주민 사랑나눔 성품전달식을 가졌고, 경남 통영시협의회(회장 모경책)는 통영시,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23일 북한이탈주민 66세대에게 상품권과 생활용품을 전달했으며, 충북 충주시협의회(회장 석종호)는 23일 북한이탈주민들을 초청해 애로 사항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통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착지원금 전달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성금 전달(전북 고창군협의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전달식(전남 함평군협의회)

전북 고창군협의회(회장 최석기)는 1월 15일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새해 맞이 행사를 열었으며, 전남 함평군협의회(회장 윤영수)는 25일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정착지원금과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 탈북청소년 문화체험(충남 예산군협의회)



▲ 어깨동무하기 멘토링 : 멘티 한방의료진료 (경남 진주시협의회)



▲ 명절맞이 탈북청소년 생활공동체 '우리집'방문 (경기 과천시협의회)

충남 예산군협의회(회장 정달순)는 지난 12월 30일 지역 탈북청소년들과 함께 청양 알프스마을로 문화체험을 다녀왔고, 경남 진주시협의회(회장 원호영)는 1월 11일 어깨동무하기 멘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방의료 진료를 실시했다. 경기 과천시협의회(회장 이순형)는 1월 26일 설 명절을 앞두고 과천시협의회가 멘토링해 왔던 안산시 탈북청소년 생활공동체 '우리집'을 방문해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지역봉사활동



위문품 및 성금 전달

▼ 희망나눔 성금기탁식(전남 영광군협의회)



▼ 노인 요양시설 방문(대전 중구협의회)





▲ 이웃돕기 성금 4000만원 기탁(부산 남구협의회)



▲ 설맞이 사랑 나누기(전북 순창군협의회)

부산 남구협의회(회장 박동천)는 1월 4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돕기성금 4,000만원을 기탁했고, 전남 영광군협의회(회장 권재국)는 13일 '2017 희망나눔 성금기탁식'을 개최해 성금을 전달했으며, 전북 순창군협의회(회장 김성수)는 23일 동계면에 위치한 장애인 요양 시설을 방문해 설맞이 생필품을, 같은 날 대전 중구협의회(회장 한재득)는 관내 노인요양시설을 찾아 생필품을 전달했다.



▲ 재일학도의용군 위로 방문(경남 합천군협의회)



▼ 6.25 참전용사 위문품 전달(충남 계룡시협의회)



▲ 명절맞이 '떡나누기'(강원 평창군협의회)

경남 합천군협의회(회장 이점용)는 1월 23일 설 명절을 맞아 재일학도의용군으로 한국전에 참전했던 김운태(92) 어르신에의 자택을 방문해 위로금과 위문품을 전달했고, 충남 계룡시협의회(회장 김원태)는 24일 관내 6.25 참전용사를 위한 위문품 쌀 900kg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으며, 강원 평창군협의회(회장 김영혜)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박순화)는 24일 저소득층과 독거어르신들에게 식료품을 나눠주었다.

급식봉사



▲ 정유년 첫 급식봉사(대구 달성군협의회)



▼ 설명절 음식만들기 지역봉사(충북 영동군협의회)



▲ 명절맞이 무료급식 지원(전남 진도군협의회)

대구 달성군협의회(회장 김상문)는 1월 4일 노인복지회관에서 여성복지분과위원, 무지개회원 등과 함께 정유년 첫 급식봉사를 실시했고, 충북 영동군협의회(회장 정원용)는 24일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찾아가 자문위원들이 직접 만든 설 명절 음식을 전달했으며, 전남 진도군협의회(회장 이기암)는 26일 장애인복지관에서 150여 명 장애우들에게 설맞이 무료급식을 지원했다.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 설맞이 전통시장 애용 캠페인 및 설 장보기(전북 익산시협의회)



▼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캠페인(충남 보령시협의회)



▲ 따뜻한 사랑나누기 어묵봉사(경북 청도군협의회)

전북 익산시협의회(회장 김영배)는 1월 20일 황등면 풍물시장 장날에 설맞이 전통시장 애용 캠페인 및 설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고, 충남 보령시협의회(회장 오치인)는 23일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캠페인을 열었다. 경북 청도군협의회(회장 박만수)는 24일 전통시장 상인과 지역민들에게 '따뜻한 사랑나누기 어묵봉사'를 실시했으며, 같은 날 강원 화천군협의회(회장 이태호)는 '2017 화천산천어축제'가 열리고 있는 화천천 축제장에서 빈병 및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 산천어축제장 환경정화활동(강원 화천군협의회)

해외활동



▲ 민주평화통일기원 조찬기도회 및 신년하례식(하와이협의회)



미국 하와이협의회(회장 김동균)는 1월 7일 각 종교계와 한인단체 및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 민주평화통일기원 조찬기도회 및 신년하례식'을 개최했다. 행사 후에는 명절 음식인 떡국으로 함께 조찬식을 가졌으며, 한인 단체장들의 신년인사로 하례식을 마무리했다.



▲ 허브스시의장상 수여(로스엔젤레스협의회)

미국 로스엔젤레스협의회(회장 임태랑)는 1월 24일 협의회 사무실에서 통일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자문위원들에게 허브스시의장상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박창욱, 이효환, 임영해, 임종택, 홍옥란 자문위원 등이며, 시상식 후에는 협의회를 내방한 김건형 LA커미셔너와 함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 무오독립선언 98주년 기념식(선양협의회)

중국 선양협의회(회장 안청락)는 1월 21일 중국 선양 한중교류문화원에서 120여 명의 자문위원 및 가족, 재중동포와 유학생, 조선족 교포들이 참여한 가운데 무오독립선언 9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2.1무오독립선언은 1919년 세 번에 걸쳐 이루어진 독립선언 중 가장 먼저 이루어졌던 것으로, 2.8도교독립선언과 3.1기미독립선언의 전초가 되었다. 주선양대한국총영사관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안청락 선양협의회회장의 환영사와 신봉섭 총영사의 축사, 관련 영상 시청, 무오독립선언서 낭독 등에 이어 ‘우리가 알지 못한 독립군의 발자취’를 주제로 한 초빙 강연이 진행됐다. 행사 후에는 대통령 표창과 총영사 감사패가 수여됐다.



▲ 신년하례식 및 통일 강연회(시카고협의회)

미국 시카고협의회(회장 이문규)는 1월 14일 힐튼 노스부룩 호텔에서 ‘신년하례식 및 통일 강연회’를 개최했다. 1부 행사에서는 의장 표창 수여식과 함께 주철기 재외동포 재단 이사장의 ‘북한문제 해결 및 새로운 동북아 추진과 동포사회의 역할’ 기초강연이 진행됐다. 이어 2부에서는 기독교방송 김정일 해설위원과 터프츠대 플레처스쿨 이성운 교수가 트럼프 정부 출범, 북한의 대외전략과 한미 대북 정책방향 등을 주제로 각각 강연을 펼쳤다. 이 교수는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인 인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한채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며 이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북핵 도발을 멈추기 위해 한국 국민은 물론이고 시카고 한인 동포들도 하나로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년하례식 및 통일 강연회(샌프란시스코협의회)

미국 샌프란시스코협의회(회장 정승덕)는 1월 13일 미첼 커뮤니티센터에서 200여 명의 지역동포, 전·현직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식 및 통일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행사 1부에서는 정승덕 협의회장의 개회사와 함께 협의회 활동현황 영상 보고가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신재현 총영사가 ‘북한의 위협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다. 신재현 총영사는 “북한의 핵에 대해 주변국과 대한민국이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강력한 군사억제력, 외교적 압력, 전 방위적 접근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국 행정실장 한 자리에… 통일활동 방향 및 개선점 공유 민주평통 '2017 행정실장 직무연수' 실시

“올해는 민주평통 271개 지역협의회의 각 사업을 과감하게 통합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합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17년은 18기 자문회의가 출범하는 중요한 해이니만큼 모두가 합심해서 '통일'이라는 달같이 부화되어 커다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과업에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오 사무처장 인사말 中)”



행정실장 24명 표창장 수여, 그동안의 노고 치하

민주평통은 지난 1월 18~19일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2017 행정실장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사무처는 매년 3~4월 경 직무연수를 실시하던 것과 달리 연초로 앞당겨 실시하여, 전국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행정실장들에게 올해 사업방향을 보다 빨리 이해시키고 지역 통일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태오 사무처장과 부산지역회의 이명숙 부의장, 이복규 회장(경주), 김정치 회장(포항), 박경조 회장(울진), 김상섭 간사(경북지역회의)를 비롯해 248명의 행정실장이 참여했다. 행사는 개회식에 이어 우수 행정실장 표창, 권태오 사무처장 인사말, 2016년 업무성과 및 2017년 계획보고, 직무강좌, 지역협의회 활동방향 발표, 협의회 운영 효율화 방안 분임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본격적인 연수에 앞서 먼저 행정실장 표창 수여식이 있었다. 김안숙(서울 성북구), 공지영(서울 영등포구), 이연희(서울 강동구), 김유미(부산 동구), 최은서(인천 지역회의), 한지영(인천 부평구), 박은정(광주 서구), 우복순(울산 울주군) 행정실장 등 24명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으로 직무에 헌신하면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통일업무를 추진해 온 공로로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권태오 사무처장

권태오 사무처장은 인사말에서 각 지역협의회 사업의 '손발' 역할을 하는 행정실장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사무처의 발전과 개혁 과제 수행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올해 사무처의 주요 사업방향을 설명하면서 각 협의회의 통일사업을 함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합 또는 폐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그 일환으로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심화시킨 평화통일 아카데미 과정 개설, 탈북민 3만 명 시대 '탈북민과 함께하는 민주평통 주간' 행사,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의 대한민국'을 보여줄 수 있는 통일영상 제작 등이 추진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권 사무처장은 "행정실장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잘 파악해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실에 부합한 인사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주요 사업계획 및 지역협의회 활동방향 공유

김안나 기획조정관은 '2016년도 업무성과 및 2017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통해 지난해 실시했던 각종 사업 결과와 성과 등을 발표한 뒤 2017년도 업무계획 및 주요방향으로 ▲세부사업별 선택과 집중 ▲통일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 발굴 및 추진 ▲홍보강화를 통한 민주평통 위상 제고 등의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가장 큰 과제인 제18기 자문회의 구성을 비롯해 출범회의 개최, 국민소통과 통일공감대 확산, 자문위원 통일역량강화, 탈북민 자립지원 확대 등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행정실장들의 이해를 도왔다.



김안나 기획조정관

이어 2시간여에 걸쳐 세 가지 분야의 직무강의가 실시되었고, 먼저 감사팀 정남수 서기관은 '지도점검에 나타난 업무처리 개선사항' 교육이 있었다. 정 서기관은 올해 120여 개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에 대한 지도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라며, 지난해 지도점검에서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도점검의 목적이 우수 운영 협의회 사례를 발굴해 업무처리능력을 상향평준화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면서 사업보고서 작성 등 각종 행정처리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기획재정담당관실 이동혁 주무관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교육'을 맡았다. 이동혁 주무관은 시스템 이용시 회계 규정에 맞춰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예를 들어 설명했으며, 대변인실 이한민 주무관은 '언론대응과 보도자료 작성법' 강의를 통해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사업을 언론에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보도자료 작성방법과 주의사항을 교육했다.



정남수 서기관



이동혁 주무관



이한민 주무관

전남경 위원활동지원국장은 '지역협의회 활동방향' 강의에서 '사무처 직원과 한술밥을 먹는 통일가족 민주평통 행정실장'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일처리의 필요성을 설명한 다음, 인사운용의 경우 신상필벌의 법칙을 따르되 우수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올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파급력과 홍보효과를 높이고 대표 브랜드 사업을 개발·추진하며 소통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행정실장들이 그 역할을 다 해줄 것을 강조했다.



전남경 위원활동지원국장



권역별 분임토의

분임토의 시간에는 권역별로 모여 해당지역 담당직원들과 함께 사무처 및 지역회의 행사일정을 확인했고 올해 변화되는 사업계획에 대한 질문들을 쏟아냈다. 해당지역 담당직원들은 답변과 함께 지도점검 사항 및 회계처리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환기시킨 뒤, 성과 있는 사업은 더욱 키우고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각 행정실장들은 지역 현안과 올해 예정된 사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 화합하는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참가소감

민주평통 행정실장님들은 '가족'인 것 같아요!



직무연수를 통해 변화된 운영방향에 대해 알 수 있었고 평소 업무를 진행하면서 궁금 했던 점 등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실장님들과 함께 우애, 친목을 다질 수 있어서 더욱 좋았구요. 통일을 바라는 마음이 커진다면 통일은 반드시 이뤄질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얼마 전 쌍둥이가 태어나서 '다둥이 아빠'가 됐는데 앞으로 가정에 더 신경 쓰는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연제구 유제호 행정실장)



올해 민주평통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교육을 받고 나니 그런 오해를 해소할 수 있었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들을 수 있었어요. 사실 저희는 지회여서 협의회와 예산을 나눠 쓰다 보니 운영비가 많이 부족해요. 그런 와중에도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모두 다 잘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창원시 진해지회 손봉숙 행정실장)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입니다. 올해 처음 연수를 왔는데 여러 가지 배운 게 많은 것 같아 유익한 시간이 되었어요. 또 다른 실장님들과도 교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임실군 박지원 행정실장)

통일 출석표를 찍어주세요!

행복한통일 웹진이 준비한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추첨을 통해 경품을 드립니다.

행복한통일과 함께하는 2월 한 달간의 꿀벤트~

통일 출석표를 찍어주세요!



행복한 통일 '통일 출석표'에 출석해주시는 분들 중
10명을 추첨해 커피교환권을 드립니다.

응모기간: 2017. 2. 12~28일까지

참여 방법

STEP 01

웹진
'e-행복한 통일'을
방문한다.

STEP 02

하단 댓글에
<출석했습니다>
라고 남긴다.

STEP 03

기사에 대한 소감을
함께 남겨주시면
당첨률 UP!

참여 예시 >

출석했습니다! 통일토크 친구들이 이야기를 참 잘하네요. 잘 봤습니다^^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도 'e-행복한 통일' 기자!

행복한통일 웹진이 준비한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추첨을 통해 영화티켓 2매를 드립니다.

행복한통일과 함께하는 2월 한 달간의 꿀벤트~

민주평통의 기자가 되어 주세요

주제 : 가상의 희망뉴스



가장 멋진 기사를 보내주신
5명을 추첨해 **영화티켓 2매**를 드립니다.

응모기간 2017. 2. 12~28일까지





응모 방법



하나

아래 예시와 같이 남북통일과 관련된 희망적인
가상의 소식을 씁니다.

- 예시1) 2017년 3월 이산가족이 다시 한 번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남북의 합의에 따라 앞으로는 매달 이산가족 모임이 이루어집니다.
- 예시2) 오늘 오전 북한이 핵 실험을 전면 중단한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그간 실험해온 핵 기구를 모두 폐기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둘

하단에 비밀댓글로 남기거나
카카오톡 (ID:행복한통일)에 남겨주세요.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e 행복한 통일 이벤트 당선

민주평통 웹진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행복한 통일' 총정리 O·X퀴즈 이벤트

닉네임

이메일 주소

달타냥

**24705@naver.com

꽃남씨

**h840101@hanmail.net

알렉시엘

**oalexiel@hanmail.net

도다미

**126_@naver.com

우리의소원은통일

**anhyu@naver.com



통일 버킷리스트 이벤트

닉네임

이메일 주소

구렛구렛

**onghao1984@gmail.com

백은정

**kata@hanmail.net

임명훈

**ngmong84@naver.com

꽃남씨

**h840101@hanmail.net

강가딘

**kang313@hanmail.net

전형

**sgud2@naver.com

오공이	**ul2933@naver.com
안형직	**torias@naver.com
elegant	**egent@naver.com
안다	**ldkitten@naver.com



웹진 만족도 조사 이벤트

휴대폰 번호	휴대폰 번호
010-**-18-4922	010-**-12-9730
010-**-25-3796	010-**-54-2675
010-**-09-5337	010-**-66-0916
010-**-65-1479	010-**-96-1833
010-**-47-8514	010-**-35-4895
010-**-62-4447	010-**-51-7172
010-**-35-9996	010-**-50-4437
010-**-83-0423	

당첨되신 분들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